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막론하고 더불어 같이 부처입니다

☞ 17면에서 계속

예전에 6 · 25 때 모래톱에서요, 총이 막 날아오니깐 총알이 다리에 맞아서 다리가 그냥 이렇게 부러졌는데도 막 그냥 뛰는 거 있죠, 급하니까. 마음이란 그렇습니다. 마음이 느긋하면 좀 천천히 걸어가게 돼 있고, 또 마음이 누긋하면 아프다고 그냥 꾀를 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게으르지 않은 사람은 아파도 그냥 '일어나야지. 할 건 해야지.' 할 때에, 마음이 그렇게 돌아갈 때 바로 일어서집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하다, 뭐하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이 차차분해선 그냥 깔아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면 '난 이제 죽는다.' 이런 거 있죠, 왜? 그런 거 많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죽으니까 이 몸속에 있는 생명들도 다 죽는 거예요. '인젠 죽었다.' 하는 거요. 이 몸속에서 작용을 해 줘야 할 생명들이 '나는 죽었다.' 하니 그게 살 수 있겠습니까?

생각들을 해 보세요. 위 공장의 책임을 맡아 가지고 있는 관리인 또는 간장 관리인, 소장 관리인, 대장 관리인, 콩팥 관리인, 방광 관리인, 척수 · 척추 관리인, 이 모두의 관리인들이 다 폭삭 그냥 죽는 거예요. 마음이 말입니다. 의욕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아이, 이건 첫째 선두자가, 앞에 선 선두자가, 마음이 '야, 이건 다 죽겠구나. 인젠 죽었다.' 이러면 그 밑으로 쭐쭐 내려가면서 다 죽겠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살리고 죽이는 거는 그 주장자에 매여 있으니, 그렇게 남이 이러는 대로 쓸리지 말고, 저러는 대로 쓸리지 말고 내 주장을 세워라 이겁니다. 악하고 선한 거를 다 놔야 된다 이런 원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 거기에 한데 합해서 돌아가죠.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면서 정히 급하고 그럴 때도, 이 국난에 이렇게 처해 있을 때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이런 걸 알면은, '회사가 어떠한 지경에 놓여 있게 된다. 이렇게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할 때에 벌써 미리미리 이걸 처리를 해야 되겠죠. 다 인제는 꺽어지고 다 저거 한 연에 이걸 일으켜 세우려니까 힘들죠. 가정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부부지간에 싸우고 헤어지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싸우는 거거든요. 내가 없다면 뭐가 싸울 게 있습니까? 부부지간에 만난다 하더라도, 자식의 인연을 짓는다 하는 것도 다 끼리끼리 만나는 인연입니다. 금은 금대로 모이고 인연이 되고 무쇠는 무쇠대로 인연이 되고, 시장에 가면 사과는 사과대로 인연이 되고 배는 배대로 인연이 되고, 이렇게 인연이 된 사람들끼리 한 가정이 됐다면 그 가정에서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러니 모두 내 탓으로, 각자 내 탓으로 돌리고 둘 아니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부드러운 말 해 줄 수 있고 부드러운 행동 해 줄 수 있다면, 그 집은 아주 화합이 되고 부유하게 늘어 가고 안 되는 일이 없이 그렇게 잘 걸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지 왜 만날 그렇게, 그렇게 좁게 그냥 자기 마음을…. 꿈을 꾸고도요, 그것도 맘대로 못 해요. 아, 그거 그냥 주인공에다 탁 놓고 '그것도 거기에서 화해서 보이는 거니깐 거기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 하고 탁 놓으면 될 거를 '이게 꿈이 나쁘니 무슨 일이 생길까. 뭐가 저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깐 일이 생기고 마는 거죠. 그게 팔자 운명이에요. 마음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은 팔자 운명이 붙지를 않아요.

이게 그걸 모르면 팔자 운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과거도 현실이고 미래도 현실이고, 현실도 공했다. 그저 마음에 따라서 육신이 움죽거리니까 어떤 거 움죽거렸을 때 내가 움죽거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매사 게 다 그렇죠. 그래서 반가워서 악수를 하니까 "어떤 게 먼저 가더냐?" 하니까 마음이 먼저 가더라. 그러니깐 손이 그냥, 그냥 따라서 가더라. 그러니까 몸뚱이 하나 움죽거리는 게 전체예요. 전첸데 그렇게 움죽거리는 걸 잘 리드해서 잘 다스려서 이렇게 자기가 마음을 잘 내면 될 거를, 요만한 것도 잘 못 내고 크게 만들어선 그냥 불려 가지고는 오히려 그냥 자기가 상처가 나고 문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 마음을 안유시켜서 편안하게 만들고 사는 게…. 한 철 사는 게, 캠핑 나와서 한 철 사는 게 그렇지,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냄비가 있으면 냄비대로 솥이 있으면 솥대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한 철 사는 건데. 그렇게 좀 마음을 넓게 쓰고 그렇게 한 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화에서 탤런트들이 한 철 고렇게 영화 막이 내리면 그뿐인 거를, 뭐, 갈 때 거지 역을 맡으면 어떻고 머슴 역을 맡으면 어떻고 대왕 역을 맡으면 어떻습니까? 칼잡이 역을 맡든 도둑 역을 맡든, 어떤 역을 맡아도 그 단순하게 한 막이 내리면 그뿐인 줄 알고 있으니깐 그거 아무렇게나 나가도 편안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길다고 몇천 년 몇만 년 살고 이러는 줄 알고 이 모습을 가지고 그냥 모두 이거는 차곡차곡 욕심 많게 쌓아 두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부질없는 일이죠, 모두가. 이 모두가 부질없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낑겨 둔 뭐가 있다면 빨리 내줘야 마음이 시원하니까 빨리빨리들 나누어주는 것이, 또 마음도 역시 그래야 우리가 회향을 했다고 할 수 있죠. 집을 지어서 끝을 마쳐도 회향이고, 밥을 지어서 밥을 먹고 나도 설거지를 다 해야 회향입니다.

저 나무들도 보세요. 나무들이 말입니다, 다 자기 뿌리에 그냥 몽땅 다 달려 있는데 싹이 무슨 걱정입니까, 글쎄. 바람이 부니 걱정입니까, 비가 오니 걱정입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뿌리에다가, 뿌리에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뿌리가 싹을 죽이게 되면 요 뿌리가 더 내려서 깊이 박혀요. 그것도 생각이 있고 말을 하고 그래요. 흔들흔들해서 비가 와서 넘어질 것 같으면 그냥 뿌리를 그냥 사방에다가 그냥 넓게 박아요. 저런 나무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아이고, 올해는 많은 비가 오고 많은 장마가 드니까 내가 뿌리를 튼튼하게 뒤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실천을 하는데 하물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못해서 어떡합니까.

살리고 죽이는 거는 그 주장자에 매여 있으니
남이 이러고 저러는 대로 쓸리지 말고
자기 주장자를 세워라.

짜장면 소릴 내가 잘하는데 하여튼 보지도 않고 먹어 보지도 않았다면 요다음에 짜장면 얘기를 해 드려도 그 먹고 싶은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나 들은 게 있으면 먹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스님이 이러한 말씀을 그전에 하셨는데 나도 좀 해 볼까.' 이렇게, 급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맛이 들어 그 줄을 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한 발 한 발 딛다 보면 이 세상을 두루 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공부, 방편입니다. 방편이자 실천입니다, 그게.

천도재 지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질문 조상 천도재를 지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마음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상을 안 차려도 우리가 마음을 잘 낸다면 천도가 될 수 있을까요?

답변 난 어떤 때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극정성으로 없는 돈도 해 가지고 그냥 조상들을 위해서라든가 뭘 이렇게 해 가지고 오시는데 "아이고, 당신네들이 부처요." 내가 그럽니다. "이러는데 어찌 부처가 안 되리." 이러고.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언젠가 그랬죠. "빚을 내서 가져오지도 마라. 당신네 고통이 내 고통이다." 이랬죠. 또 때로는 여러분이 정성을 들이는 거를 남에게 줘서 보내는 것도 있어요. 왜 남을 줍니까? 내가 가져와서 해도 시원치 않은데. 그게 공덕이 다 되리라고 생각도 못 할 텐데 어떻게 남을 줘서 그 심부름을 시킵니까? 그 심부름값은 안 빠지는 겁니까? 심부름값도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에서는 이 쌀을 그냥 무겁게 이고 와도 그걸 스님네들이 받지 않습니다. 그이네 공덕이 사해질까 봐. 초 한 자루를 가져와서 이렇게 가져오고 그 무겁게 그 뭘 들고 와도 아주 그냥 "고생하는 끝에 좀 더 하십시오." 그러고 그냥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성을 들이는 거를 딴 사람 통장에다 넣어 준다, 대신 해 달라 이러는데 그러면 그거 무효입니다. 어떻게 그게…,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문 바깥에서 저, 돈 한 잎 쌀 한 되박을 이렇게 가져와도, 그것만 가져와도,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왔으면 그거를 벌써 문 바깥에서 아니라 문 안에서 생각하는 반면에 벌써 부처는 알고 있다 이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으니깐 일체가 다 알게 되는 거죠. 자기가 마음 나쁘게 쓰고 이렇게 마음먹는다면 일체가 다 알게 되지, 그거 보지 않고 듣지 않는다고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면서도 말을 안 할 뿐입니다. 모두가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깐 그 꾀를 피지 마시고 그 항상 자기가 할 거는 요만한 거 한 푼이라도, 하다못해 요만한 한 조가리라도 가져왔으면, 그거 없는 집은 있는 집 백만 원보다도 더 큰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져올 때 정성스럽게, 마음을 정성스럽게 넣어서 정성스럽게 갖다 놓으면 그거를 그 집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또 써 주는 스님네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집 스님네들은 남의 돈은 이렇게 가져오는 거를 그냥 그저 아무렇게나 쓰지 않습니다. 절대 요만한 거 하나 허탈히 쓰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그렇게 알고 가기 때문이죠.

이 모두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항상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항상 일체제불과 우주와 더불어 다 그냥 연락이 되고, 다 이렇게 연락이 돼서 예전에 그 부처님한테 연등부처가 "너 이다음에 태어나면 석가가 되거라." 이러고 수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기를 준 연등부처가 따로 있고 수기를 받은 석존이 따로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금 자기의 불성이 발현이 되고 자기가 지금 현재 자기와 둘이 아니게 그게 상봉을 한다면 모두가 이 몸뚱이 속에 있는 생명들도 다 보살로 화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두가 이렇게 되면은 일체제불과도 같이 찰나찰나 통신이 되고, 찰나찰나 모이고, 찰나찰나 나투고 이렇게 하는 까닭에, 그것은 모두가 합의한 마음으로 그렇게 잘하니깐 모두가 합의한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 자불이 연등불로 화해서 수기를 준 거지, 누구가 석존한테 "너 석가가 되거라." 그러고 다른 부처가 이 부처한테 말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불의 연등불이 연등불로 화해서 그렇게 수기를 주신 거기 때문에 수기를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다 이렇게 나오죠. 받은 사람도 없고 준 사람도 없지만 그대로 연등불은 연등불이다. 이 세상에 연등불로 화해서 수많은 일체 중생들을 다 인연을 지으셨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히 없어서 천도를 못 시키시는 집들은 전부 자기 주인공에다 놓으세요. 모든 거를, 죽은 사람들이 조상들이라면 자기 주인공에다 모든 걸 한데 놓으란 말입니다. 거기다 놓고 자꾸 가다 보면 조상들도 자기가 공부하는 대로, 차원대로 그걸 알고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상들이 좋아서 공부하는 자식을 도와서 이렇게 자꾸 저거 하고, 외려 자꾸 잘못되게 하는 게 아니라 도와줘요.

조상도 착을 가지고 습을 가지고 살다가 그냥 죽었으니 불에 들어가면 타 죽을 줄 알고,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을 줄 알고, 또 내 이 몸뚱이를 건너야 되는데 내 몸뚱이 속의 수많은 그 벌레들이 왕창 커져 가지고는 세균들이 그냥 모두 널려 있으니 그걸 밟고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모두 넘어설래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이 이 공부를 하걸랑은 전부 거기다 넣으세요, 둘 아니게. '주인공 한자리에서 전부 할 수 있잖아.' 하고 다 거기다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조상들이 열 명이든 스무 명이든 천 명이든 그냥 다 자기 아는 것만치 다 알게 돼요.

재사 지낼 때도 왜 내가 우주떡 하나만 놓고 해라 이랬느냐 하면, 그건 떡이 떡이 아니다 이겁니다. 살아 있을 적에 요것조것 그냥 밥반찬을 놓고 밥을 놓고, 이렇게 차려 놓고 먹던 그 습이 없어져야 이 둥글게 그냥 부처님 자리로 한자리를 갈 수 있을 텐데, 한자리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영령들한테 그 모든 걸 말없이 가르쳐 주면은 그렇게 좋아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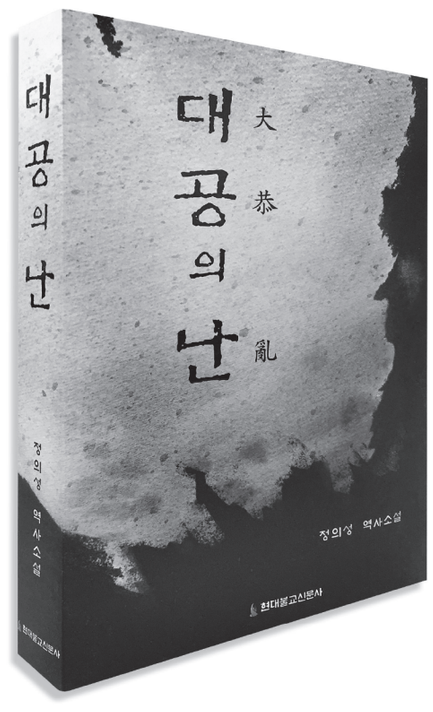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거 뭐, 돈이 드니 못 합니까. 뭐, 자기 뿌리를 자기가 진짜로 믿는다면 자기 나무는 아주 푸르르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모두 놓고 가면, 한자리를 하라고 이렇게 하면 그냥 그대로 천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배워서 그대로 그냥 승천을 하는 거죠.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마하몰 02)732-1520